

특별 기고

가야, 백두대간을 넘어 장수에 화려함을 수놓다

지난 10월 1일 동촌리 고분군이 장수군 최초로 국가사적(제552호)지정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분명 한국고대사를 재정립해야 할 획기적 사건이며 이를 근원으로 하는 많은 학술연구가 불가피하다.

그동안 장수군은 백제로 인식되어 고대사에 있어 늘 변방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장수 동촌리 고분군이 학계에 보고된 이래 6차례의 발굴조사와 3차례의 학술대회를 통해 그 역사성과 가치가 입증되어 국가사적 지정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동촌리 고분군은 지정과정에서 지정신청면적은 8만 제곱미터였으나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신청면적의 3배에 달하는 24만 제곱미터를 지정하라는 심의결과를 통해 오히려 그 면적이 3배나 넓게 지정되는 일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동촌리 고분군 즉, 장수지역 가야문화유산의 가치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하다.

이는 분명 우리 장수군의 역사성이 매우 중요했다는 가치를 입증할 뿐 아니라 우리의 뿌리를 바로세우는 일이기도 하며 중요로운 미래의 땅을 이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근원이기도 하다.

장수군은 고대사의 한 획을 그은 가야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체계적 관리를 모색하기 위해 관련 학예연구사를 채용하고 본격적으로 보존과 활용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촌리 고분군뿐 아니라 백화산고분군, 침령산성, 합미산성 등 장수군 중요유적지에 대하여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삼고리 고분군, 대적골 제철유적, 삼봉리 봉수유적, 노하리 고분군 등은 전북도



장영수

장수군수

기념물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사적이나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받기위해서는 그 유적의 역사성이나 가치를 규명하기 위한 명확한 학술적 연구 성과와 지역민의 관심도 등은 중요평가 자료이기에 한 유적이 발견 후 그 가치를 증명 받아 국가사적으로 지정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기간, 예산이 필요하다.

동촌리 고분군의 경우 국가사적까지 20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수군민의 열원이 반영될 결과이다.

활용측면에서는 장수군의 가야를 알리고자 전북가야 서포터즈 육성 사업을 2018년부터 시작하여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모시고 장수가야에 대한 체험활동, 유적지견학, 교육을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에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모든 단체나 모임은 신청가능하다.

*신청방법: 장수군청 문화체육관광과 가야문화팀(063.350.2327)으로 문의

또한 산성과 봉수를 잇는 가야길을 조성하여 약 2km구간을 마련하였으며 이 가야길은 봉수유적과 산성유적을 관람할 수 있다. 전북가야 선포식을 거행했던 번암치재에 봉수왕국 전북가야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며 봉수정과 기념비석을 세웠다.

장수동촌리 고분군과 백화산고분군은 천 오백년이란 세월이 흘러 유실된 고분의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6기의 고분을 복원해 놓았고 지속적으로 주변 정비 및 유적 탐방로를 개설하여 주변 논개사당, 장수향교, 누리파고, 한누리 전당과 연계된 장수군 대표 문화유산 관광단지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전라북도 최초로 가야 흥보관을 건립하였고 내부에는 전라북도 가야의 흥망성쇠, 장수지역가야의 특성을 소개하였고, 일부공간에 가야 유적을 모티브로 한 트리아트, 가야 관련 서적을 접할 수 있는 책모터를 마련하였다.

장수군은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장수가야 역사관"을 추진하고 있으며 역사관 내부에는 전라북도 가야이야기를 담고 체험할 수 있는 알찬공간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수가야 역사관 개관과 동시에 백화산고분군과 연계된 여러 문화유산 관광지원화에 관심을 갖고 추진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고대역사 즉 근원은 동철서열(東鐵西鹽)로 대표된다고 한다. 전라북도 서쪽은 소금으로 성정했고 장수군을 비롯한 동부지역은 철을 바탕으로 성장했다는 이야기다. 백두대간이 선물한 풍부한 철광석을 바탕으로 강력한 고대문화

를 형성하였다.

장수군을 비롯한 전라북도 동부지역에서 확인되는 200개소의 철 생산유적이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호남과 영남을 잇는 고갯길 육십령고개 그동안 도적떼가 많아 60명이 모여야 지나갈 수 있는 고갯길이란 지명유래가 있는데 인근에서 확인되는 철 생산유적을 통해 그 지명유래를 역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철을 옮기는 데는 당연히 60명이상이 필요했고 지금도 반도체 탐방로를 개설하여 주변 논개사당, 편자 또한 우리지역 가야세력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좋은 생산품이다. 말의 뒷발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편자는 말뼉과 함께 출토되었으며 가야문화권에서는 최초로 확인된 유물이다.

편자는 그 역할이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말의 무게를 견디며 장시간의 이동에서도 말의 피로감을 최소화 시키는 말의 신발로 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 도구이다. 천오백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 역할이나 외형, 재질이 변하지 않는 얼마 안되는 도구이며 현재의 기술로도 만들기 힘들다고 한다. 마치 작지만 강하고 진국인 장수와 닮은 듯하다.

장수군은 우리 선조의 역사를 잠시 잊고 싶었지만 그 화려함은 쉽게 잊혀 지지 않는다. 그를 통해 중요한 미래의 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누군가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했다. 이를 되새겨 역사를 잊지 않는 장수군의 앞날을 기대하며 글을 마치려 한다.

사설

익산 장점 마을의 비극에서 교훈 얻어야

전북도와 익산시는 익산 장점 마을의 비극에서 교훈을 얻어야 했다. 그리고 다른 시군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다. 지역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 정말이지 다들 정신을 차려야겠다.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다. 익산 장점 마을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암에 걸려 죽어갔는데 전북도와 익산 지자체의 책임이다. 익산 장점 마을의 비극의 원인이 이밖에 공식 밝혀졌는데 정말이지 통탄스런 극장 관계가 아닐 수 없다. 발병 원인이 2006년에 들어선 비료 공장이라고 지난 십수년간 여러차례 진정했는데 공장이 없어지고 오래된 지금에야 판결이 났으니 말이다.

익산 장점 마을의 비극에서 도내 각 지자체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저번에 익산군에서 외지의 쓰레기를 반입해 매립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했던 말이지만 전북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분명하다. 제발 정신 좀 차려야겠다. 말로만 웰빙을 떠벌려 무슨 소용이 있는

가. 전북도가 이 정도로 환경에 무관심 한지는 몰랐다. 말끝마다 우리 지역이 청정 지역이라고 되뇌었지만 말장 거짓말이라는 게 완주군에서도 드러난 적이 있다. 비봉면 보은마을의 폐기물 매립장에서 청산가리 성분과 발암물질이 대량으로 검출됐었기에 하는 지적이다.

익산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완주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내 언론사들은 뜨거운 분노의 말을 쏟아냈다. 도내 다른 시군의 일반 시민들도 치를 떨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래서 지금 전북도에게 촉구할 것이 있다. 말로만 제물을 챙기지 말고 말로만 자존을 강조하지 말라는 거다. 엉터리 불량 공장이나 유치하고 외지의 쓰레기나 반입하는 주제에 무슨 제물 찾고 무슨 자존심 강조란 말인가. 폐기를 매립장에서 독극물인 폐놀과 비소가 검출되고 있는데 시신을 다른데 주어서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전북도와 익산시는 이번엔 주민의 분노에 찬 항의에 고개 숙여야 한다.

전주 특례시 지정 안전 국회서 탄력받아야

지역발전이 항상 중심 주제가 되어왔다. 이 말은 전북도에겐만 주는 것이 아니다. 각 시군 지자체에게도 주는 말이다. 요즘 같은 때는 특별히 전주시 쪽에 무게가 실린 당부가 아닐 수 없다. 저번에 했던 말을 또다시 전주시 관계자들에게 반복하는 이유가 있다. 국회 행안위의 특례시 법안 검토 과정에서 전주의 특례시 지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안전이 문서로 공식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본래의 안대로 100만 이상의 도시만 특례시로 지정되면 전주 시민의 실망이 이만 저만이 아닐 것이다.

전주 특례시 지정 안전은 국회에서 반드시 힘을 받아야 한다. 거듭 말하거니와 지역 발전은 전북도만 이끌어 가는 게 아니다. 전주시도 지역 발전을 이끄는 데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저번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포부와 성공의지를 밝힌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전주 시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김시장과 브레안들은 이번에 특례시 지정 의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지역 발전이 있을 터이나 그렇지 못하면 지금보다 더욱 힘든 나라로 떨어질 게 분명하다.

다시 또 강조해 말하거니와 우리 지역은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해 너무 낙후돼 있다. 도시사와 전주시정을 비롯해 지역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꼭 넓게 뛰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고 할 수가 없다. 전주의 특례시 지정건도 그렇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그 언제 기회가 올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지금 특례시 지정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면 더욱더 힘을 내 이쪽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전주시는 보다 강해야 한다. 말발을 앞세워서라도 힘차게 나가야 한다.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전주시는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는 저력도 보여야 한다. 지역 발전에 박차를 가하려면 그래야 한다. 여기 다시 당부하거니와 전주시는 희망의 근거가 돼야 한다. 전북도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생두마차가 되어 달라는 주문이다. 이번에 100만 이상의 도시들만 특례시 자격을 준다면 정부의 국토 균형 발전 방침은 말짱 헛것이다.전주시는 그것도 역설해 뜻한 바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주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수능시험 후 청소년 탈선 주의 필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험 중의 하나인 수능 시험이 끝나 어느새 수험생들은 무거웠던 입시부담에서 벗어나 해방감과 갑작스런 여가시간의 증가로 매년 이맘 때 수능생들의 탈선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무엇보다 무리지어 음주·흡연, 길거리 배회, 유흥업소를 출입하거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학교폭력 등의 일탈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올해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선도·보호활동이 필요하다.

수능 직후 각 학교에서 진학지도와 특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에게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될 청소년들에게 부모, 형제자매, 교사 등 주변 사람들의 주의 깊은 관심과 사랑이 집중되어야 하고 경찰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백요섭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소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홍콩을 구해 주세요”



홍콩 경찰이 18일 새벽(현지시간) 홍콩 이광대(폴리테크닉) 진압 작전을 단행한 가운데 두 명의 시위 대원이 손뼉을 기자들에게 들어 보이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